

멀티/분산 클라우드, 차세대 클라우드를 향한 도전과 기회 - 클라우드바리스타 커뮤니티 제9차 컨퍼런스 -

클라우드바리스타가 바라보는 멀티 클라우드 ...

리더@클라우드바리스타 커뮤니티 강동재

시나몬 (Cinnamon) 한잔 어떠세요?



목 차

멀티 클라우드와 클라우드바리스타

국내 멀티 클라우드 대응 현황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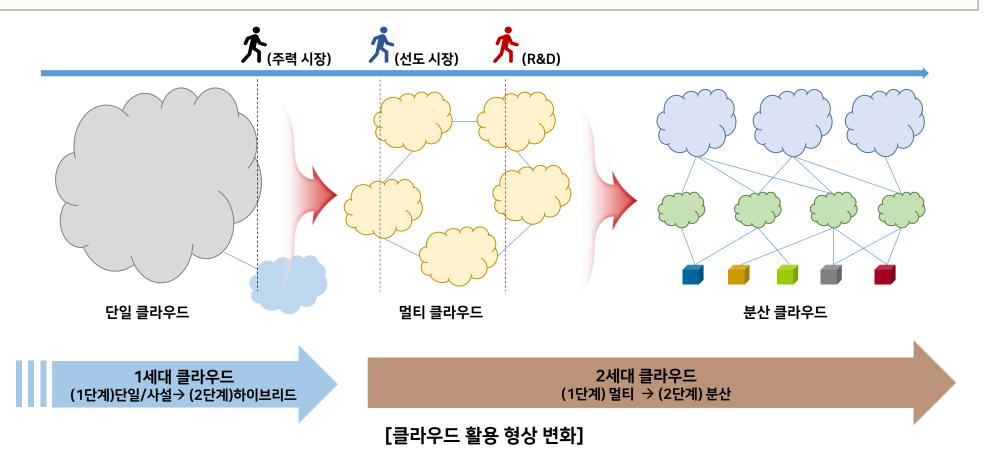




클라우드 활용 형상의 진화

• "단일/하이브리드 클라우드 → 멀티/분산 클라우드" 활용 형상으로 변모

구축 → 활용, 서비스 커버리지 확장, 저지연성 강화, 서비스 이동성, 서비스/CSP 상호운용성, 서비스 연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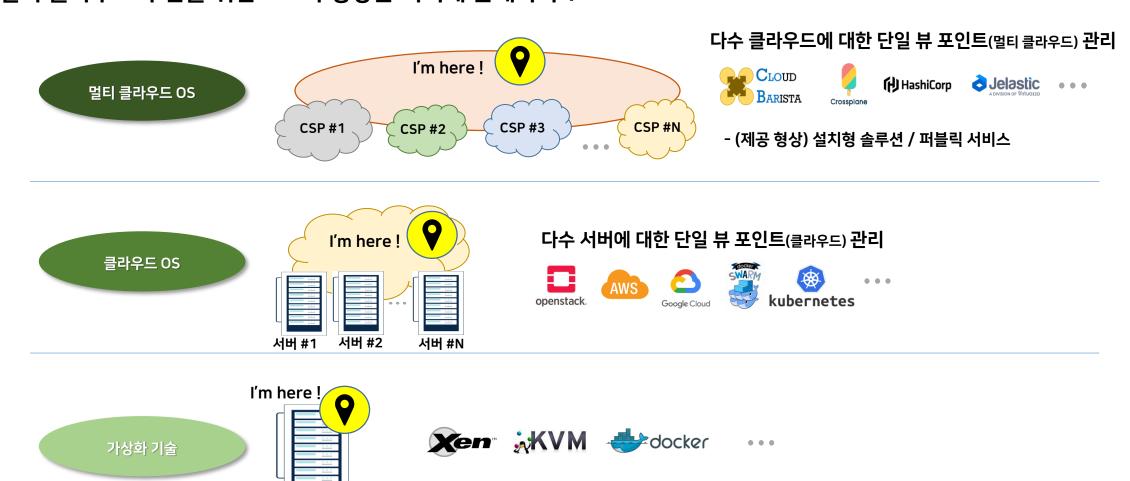


3



멀티 클라우드 구현 레이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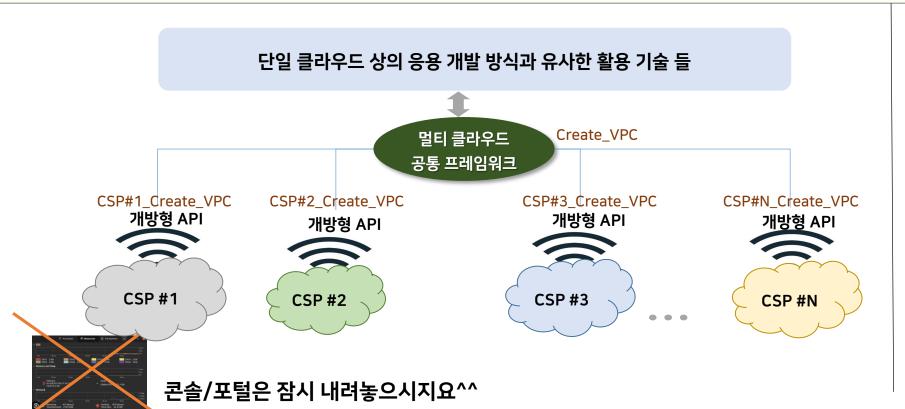
• 멀티 클라우드 구현을 위한 SW의 형상은 어디에 존재하나?





멀티 클라우드의 근간 - 개별 클라우드 개방형 API

- 멀티 클라우드 구현의 기본은 <u>개별 클라우드 개방형 API를 기반</u>으로 이종 CSP 클라우드의 다양한 <u>기능을 추상화</u>
- 멀티 클라우드 세상에 참여하기 위한 CSP의 역할 → <u>개방형 API의 제공 및 안정성 보장</u>, It's just enough!
 - 범용 기능을 중심으로, 시장 주도적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사 기능의 API 제공은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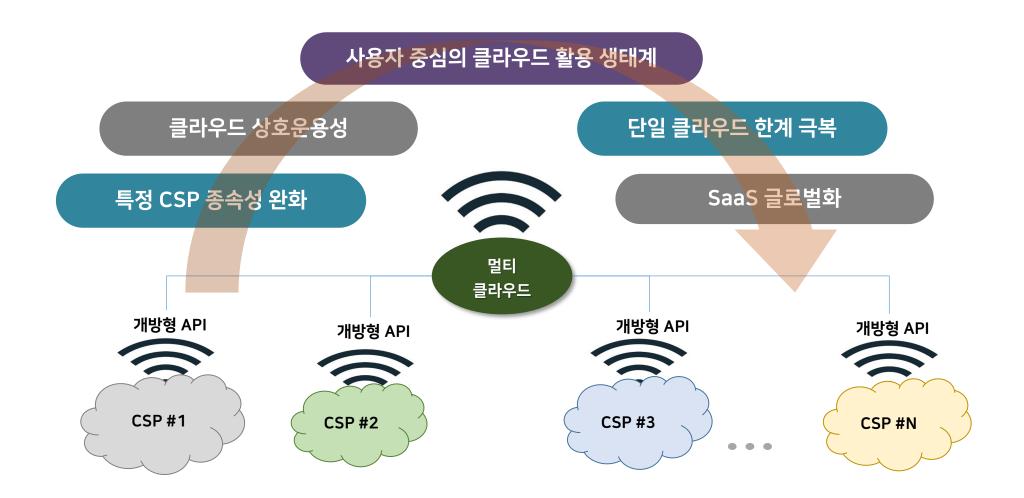






멀티 클라우드의 기여@생태계

• 멀티 클라우드는 개별 CSP 클라우드의 활용 이질성을 완화/개선하는 것이 메인 이슈임





클라우드바리스타 (Cloud-Barista)?

- 클라우드바리스타는 전세계 기 구축된 다양한 이종 클라우드를 제약없이 활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
 -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/솔루션을 만드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기반, 공통SW 기술

컴퓨팅 인프라에 제약 없는 응용 서비스 제공 및 관리 환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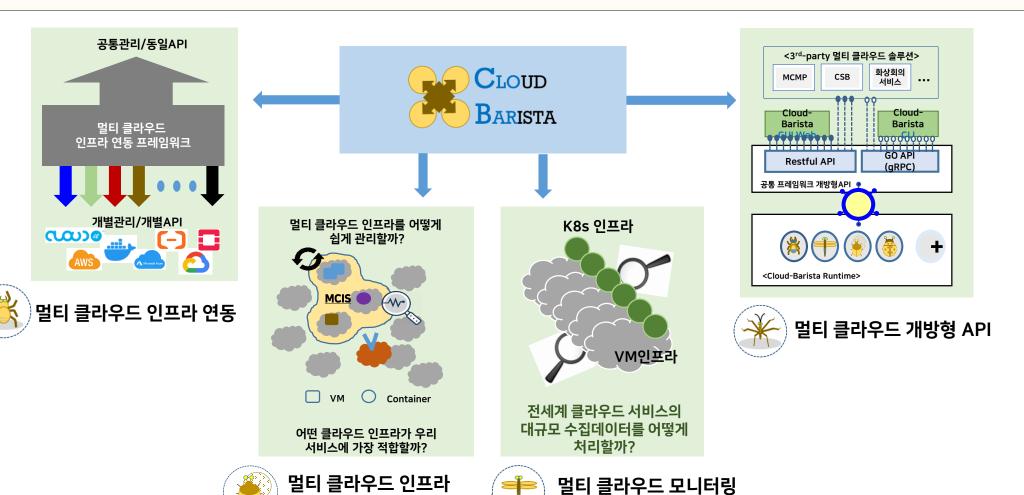




클라우드바리스타의 주요 기술

서비스 통합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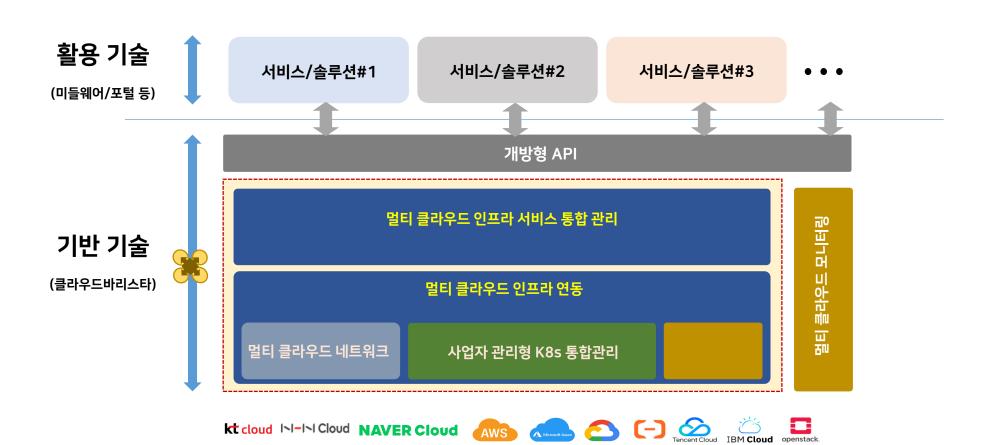
• 이종 클라우드를 제약없이 활용하기 위한 4가지 주요 기술





클라우드바리스타 구조 및 활용 형상

- 클라우드바리스타의 개방형 API를 기반으로 3rd Party 신규 서비스/솔루션 개발
 -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/솔루션 개발에 요구되는 공수(비용)의 70% 이상 절감을 목표로... ^^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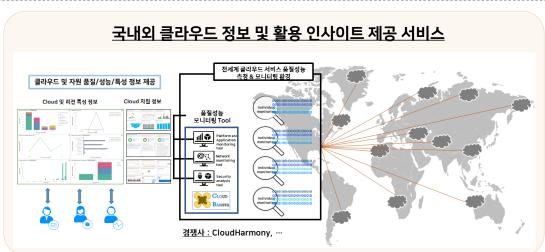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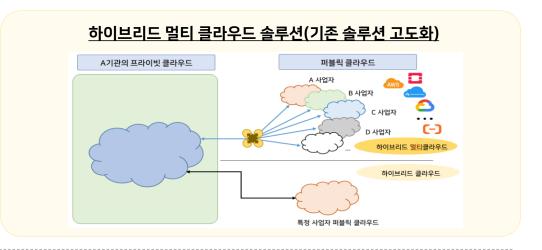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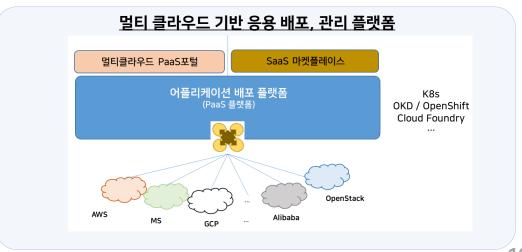
© **활용 기술 사례** - 기술의 직관적 활용

• 이종 클라우드 관리, 활용의 복잡성을 극복하여, 멀티 클라우드의 제약 없는 활용을 위한 사례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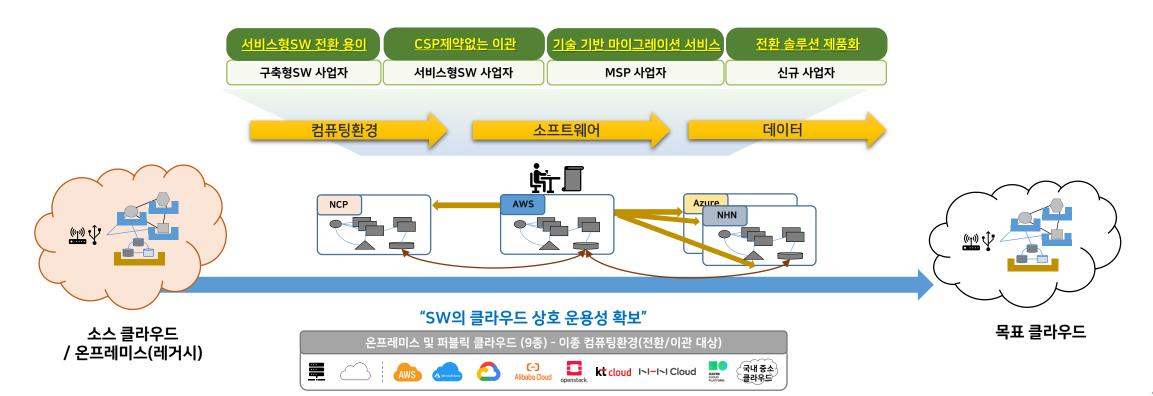






활용 기술 사례 - 기술 노하우 기반의 고도화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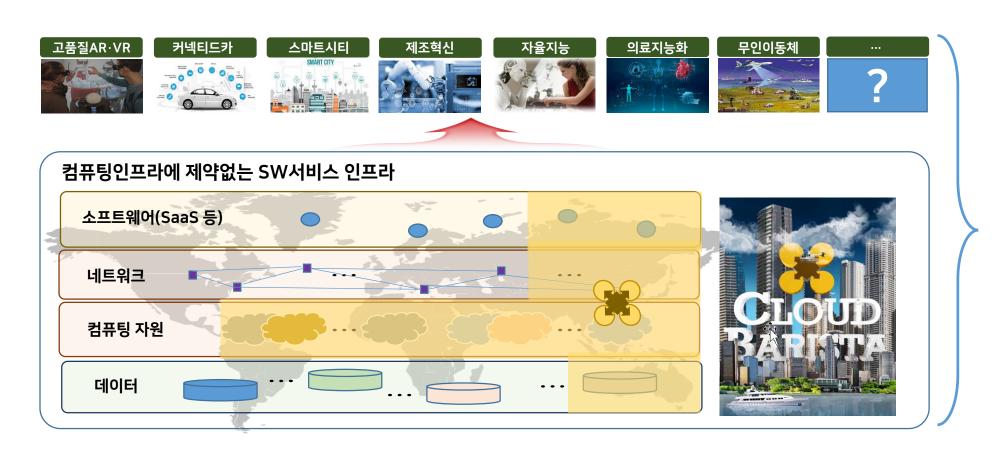
이종 사업자 컴퓨팅 환경의 이질성 및 복잡성을 극복하는 <u>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</u> 국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서비스형SW 전환/이관((전환)구축형SW→서비스형SW, (이관) 서비스형SW의 CSP변경)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<u>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플랫폼</u> 개발 - 서비스형SW 전환/이관 공수(예산, 기간, 인력 등)의 최소화로 국내 SW 기업의 비즈니스 민첩성 및 경쟁력 강화





클라우드바리스타가 지향하는 멀티 클라우드 세상

- 컴퓨팅 인프라에 제약없는(제로락인@EU) 서비스 생태계
 - CSP, 지역, 활용 방식 이질성 등에 제약없이 CSP/SW서비스가 변경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(배포, 운용, 제공)되는 서비스 환경
 -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사의미의 키워드 : SaaS 상호운용성 제공, 사업자종속성 극복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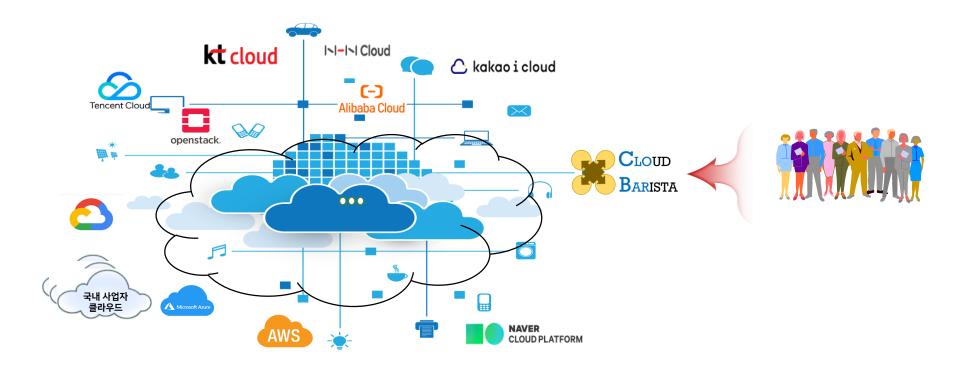
인프라에 제약 없는 서비스 생태계

出非配



멀티 클라우드로 만드는 K-OneCloud 생태계 – It's Just Dream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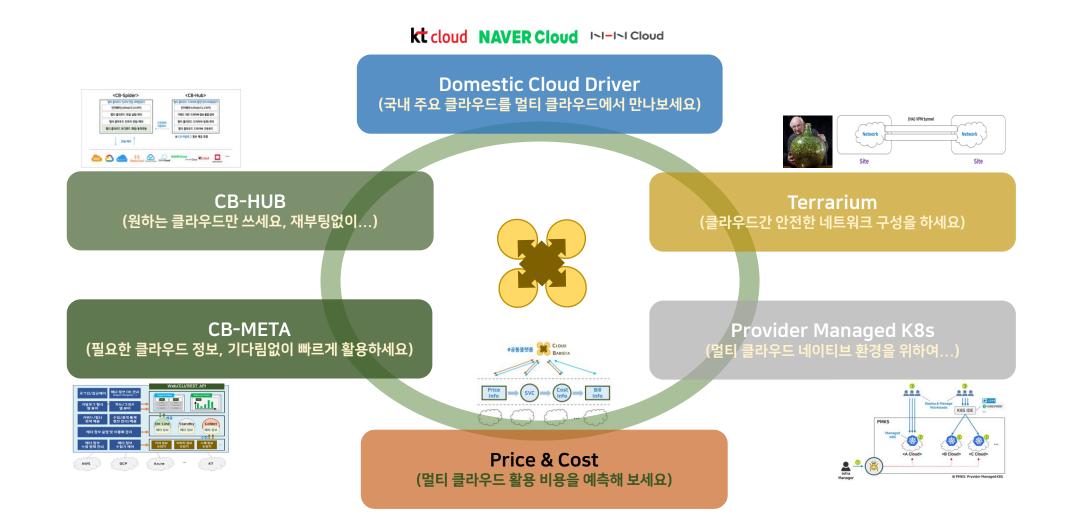
- 국내 주요 사업자(글로벌 및 국내 사업자)의 클라우드를 연동하여 동일한 접근 및 활용 방식을 제공하여 상호 운용이 가능한 대규모 멀티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"K-OneCloud"
 - 교육 및 과학기술 R&D 클라우드의 기반 인프라, 한국형 GAIA-X의 기반 컴퓨팅 인프라, 창업, 벤처기업 지원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등



(Q) 이런 인프라가 있으면 …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? (A) 국내 생태계가 풀어야 할 Action Item



최근, 몰입하고 있는 일 들





클라우드바리스타의 주요 특징 - Not Fixed, Move U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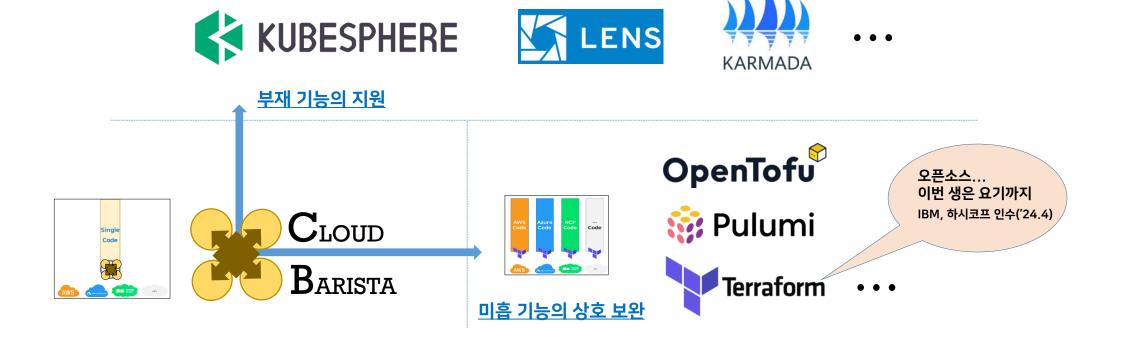


- **10**종(12종 클라우드) **CSP** 사업자 지원
- **176**개 글로벌 **리전**(378개 존) 자동 등록/관리 지원
- **12**종 클라우드 **자원** (140여개 이종자원) 추상화
- **320**여개 개방형 API 제공
- ※ 2건(ITU-T) 멀티 클라우드 글로벌 표준 확보
- ※ 9개 클라우드 협력사



오픈소스 진영, 경쟁이 아닌 상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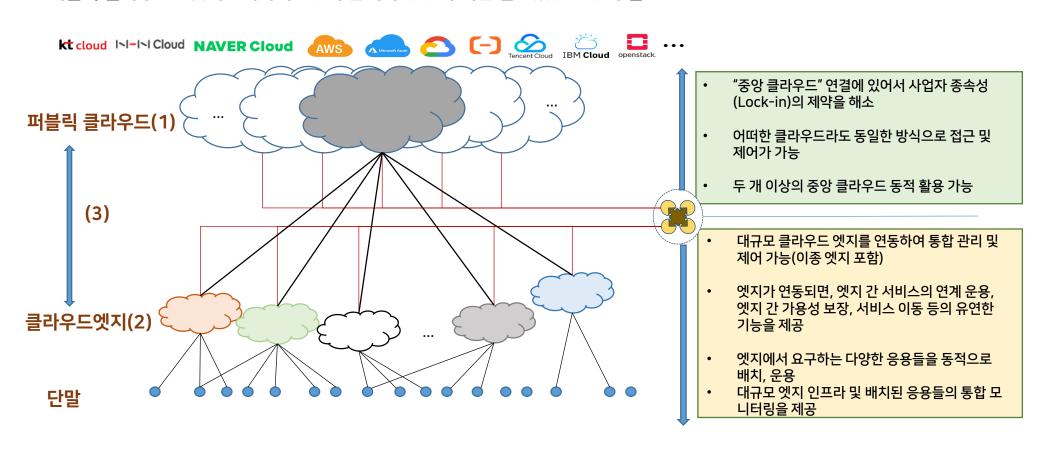
- 유사 영역의 오픈소스는 <u>미흡한 부분을 상호 보완</u>할 수 있는 <u>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형상으로 협력,</u> 기존 글로벌 오픈소스의 포지셔닝을 인정/활용하고, <u>부재 기능을 매워주며 상생</u>
 - 오픈소스 진영과의 상생 전략은 클라우드바리스타의 개발 범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략





분산 클라우드를 향한 여정 Action Ite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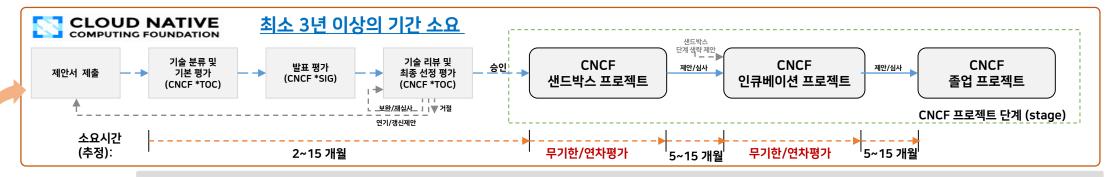
- 분산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, 엣지 및 디바이스가 연계되어 컴퓨팅 자원의 제약없는 활용이 가능한 환경
 - 멀티클라우드와 엣지컴퓨팅의 만남 어떠신가요? 엣지도 형상적으로 조그마한 클라우드...^^
 - 어떠한 Killer App이 창출될까요?
 - 퍼블릭 클라우드 엣지 디바이스간의 관계와 연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





기술의 지속적 보급 Action Item - 글로벌 공개SW 파운데이션 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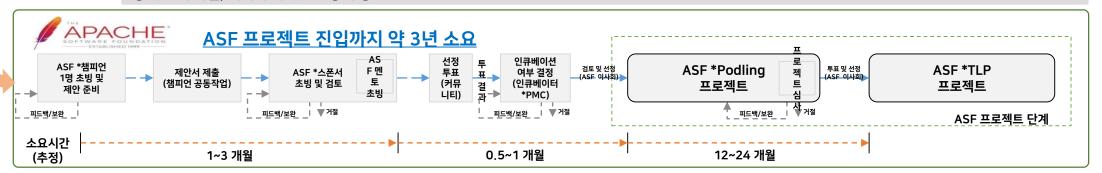
- 글로벌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의 등재 → 최소 3년 소요
 - ['23~'25] <u>커뮤니티 자체 고도화(국내 기여자 확보, 인지도 개선, 개발 활성화, 활용 사례 확보</u>)
 - ['26 ~] 글로벌 파운데이션 제안서 제출 및 관련 절차 추진





[(국내) <u>파운데이션 등재 제안을 위한 니즈 충족 조건 준비</u> 필요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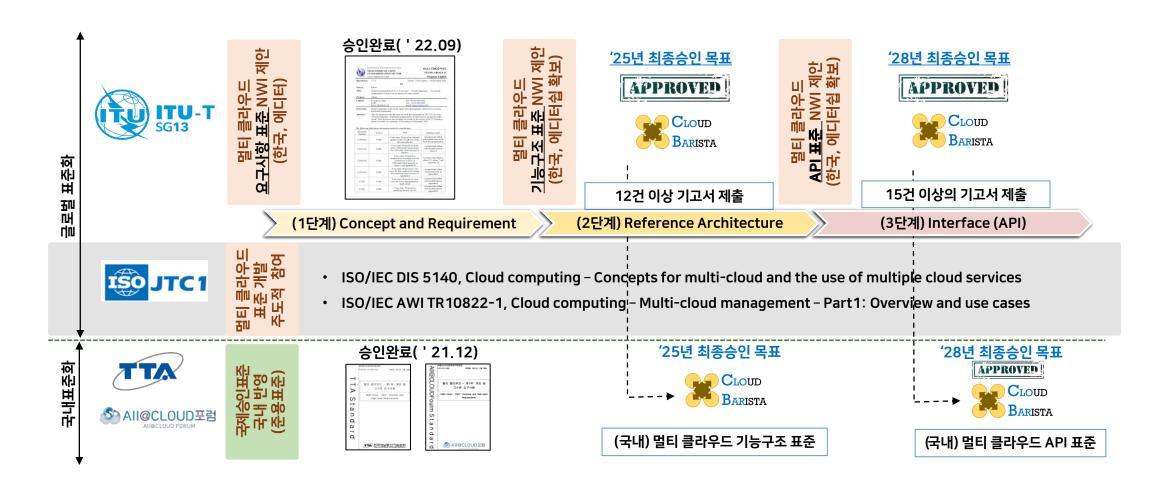
파운데이션 주요 기술과의 연계성, 기존 공개SW와의 차별화, 커뮤니티 규모, 활용 레퍼런스 확보, 라이선스 호환성, 글로벌 언어, 참여자 다양성, 공개 논의 채널, 기여자 라이선스 동의 등





글로벌 표준 기반 국내 솔루션 확보 Action Item - 글로벌 표준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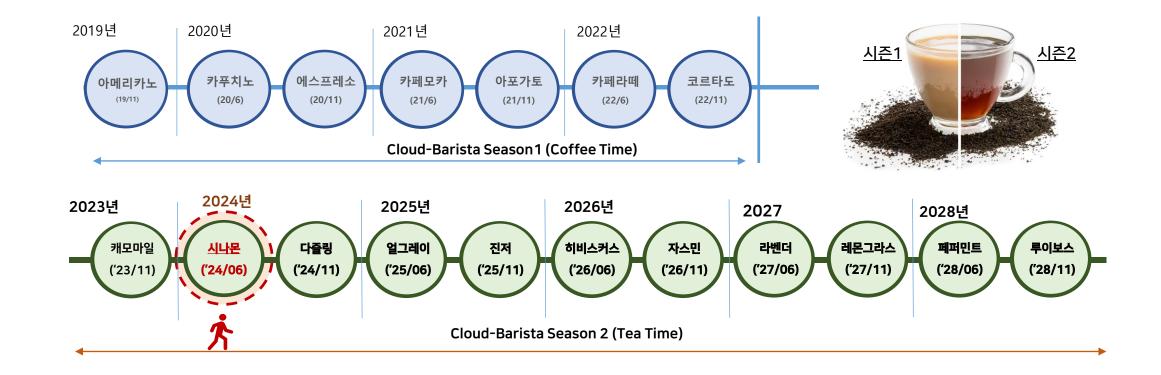
국제 표준화 기구(ITU-T, ISO JTC1), 분산 컴퓨팅(멀티 클라우드) 국제 표준화 리더십 및 표준 확보(각 단계 3년이상 소요)





클라우드바리스타 릴리스 로드맵

- 소스코드 라이선스 및 개발언어
 - 기술수요자 측면에서 활용 및 사업화에 유리하고 Cloud-Barista의 활용 공개SW와 호환이 우수한 아파치2 라이선스로 릴리스
 - 주요한 클라우드 공개SW가 수용하고, 개발자 확산 비율이 가장 높은 GO 언어 기반으로 개발





[참고] "선택과 집중" 을 위한 시즌(우선순위) 전환

시즌 1 ('19~'22)

Broad Research & PoC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던 전체 형상 마련

기술적 니즈 중심

글로벌 클라우드

기반 기술

타 오픈소스와의 경쟁

집중을 위한 선택임을…

시즌 2 ('23~'28)

Immersion & Deep Dive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는 탄탄한 기반SW 확보

수요자 니즈 중심

국내 클라우드

활용 기술

타 오픈소스와의 상생

결과물의 활용 가속화



시간과 공수의 효율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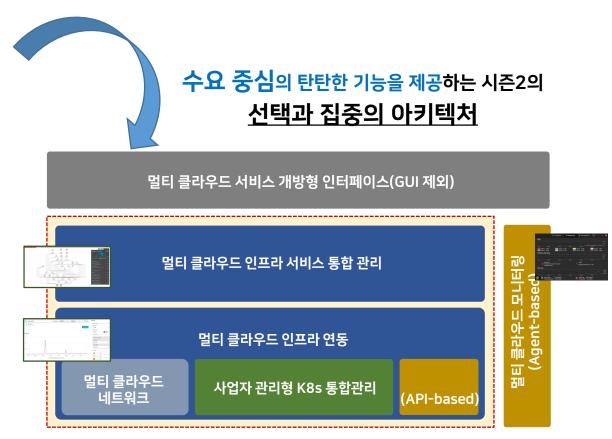


[참고] 클라우드바리스타 아키텍처 변화

• "시즌1 → 시즌2" 전환에 따른 아키텍처의 변화



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시즌1의 All-In-One 아키텍처





[참고] 시즌1 → 시즌2 전환의 주요 기술 변화

- (전환 포커스) 멀티 클라우드 분야, 3rd party 솔루션의 수요 니즈가 가장 큰 Restful API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면서 신속한 기능 제공에 집중 (CLI는 관리자 필수 기능만을 지원)
- (전환 포커스) 현 시점 기술 수요자의 니즈가 집중된, <u>사업자 관리형 K8s의 개발 집중 및 지원범위 확대</u>
 - CMKS / MCKS, 현 상태 Freezing, 추후 수요 니즈 발생시 재 추진
- (전환 포커스) 최종 서비스 사용자 니즈가 발생하는 <u>Agentless Monitoring 방식을 추가 지원</u>
 - 기존 Agent-base Monitoring 방식은 light-weight 형상으로 아키텍처 개선
- (전환 포커스) CSP가 제공하는 고속의 네트워크와 풍부한 기능들을 활용하는 <u>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제공</u>
 - 기존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술(CLADnet)은 현 시점 Freezing, 추후 관련 니즈 발생시 재 개발
- (전환 포커스) <u>글로벌 → 국내 클라우드 중심</u>의 연동, <u>클라우드 자원 추상화의 범위 확대</u> 등
 - 사업자 관리형 K8s, Agentless Monitoring, 네트워크 등의 주요 기능을 추상화(동일 API) 수준에서 제공





멀티 클라우드 측면에서 바라본, 글로벌 VS. 국내

집중(사용자 관점)하고 있는 <u>활용 방식</u>과 <u>활용 수단</u>에 따라서, 개별 클라우드의 멀티 클라우드 대응력은 결정



🧱 Cloud 생각 : 현재는... <u>지원 서비스의 개수 보다는 기본 서비스의 글로벌향 및 안정화/고도화가 중요</u>



국내, 멀티 클라우드 대응 측면의 이슈 사례 - 1/2

	Provider	Price Info	Region /Zone Info	lmage Info	VM Spec Info	VPC Subnet	Security Group	VM Key Pair	VM	Disk	User Image	NLB	Managed K8S
	AWS	0	0	0	0	0	0	0	0	0	0	0	0
국내 클디구드 글푸르 르니구드	Azure	O (Spec제외)	0	0	0	0	0	0	0	0	0	0	WIP
	GCP	WIP	0	0	0	0	0	0	0	0	0	0	WIP
	Alibaba	0	0	0	0	0	0	0	0	0	0	0	0
	Tencent	0	0	0	0	0	0	0	0	0	0	0	0
	IBM VPC	O (Spec제외)	0	0	0	0	0	0	0	0	0	0	WIP
	OpenStack	NA	0	0	0	00	0	0	0	0	0	0	?
	A사 Classic	WIP	0	0	0	O (Type1)	O (Note1)	0	0	0	0	0	NA
	A사 VPC	WIP	0	0	0	0	0	0	0	0	0	0	?
	B사	NA	0	0	0	O (Type2)	0	0	O (Note2)	0	WIP	WIP	0
	C사 Classic	NA	0	0	0	O (Type1)	0	0	0	0	0	0	NA
	C사 VPC	NA	0	0	0	O (Type3)	0	0	0	0	WIP	O (Note3)	Wait API



국내, 멀티 클라우드 대응 측면의 이슈 사례 - 2/2



- 필수 기능 중, 일부 기능의 개방형 API 미 제공
 - ✓ E.g. 방화벽, VPC, VM, K8s 등의 일부 기능
 - ✓ Internet Gateway, 제어 API 미 제공
 - ✓ VPC 클라우드 이지만, VPC의 생성 제약 (생성 미 허용 또는 기본 3개 까지만 허용 등)
 - ✓ Root Disk의 크기 조정 미 제공 등
- Go SDK 미지원
- 개발자 API 매뉴얼의 구체성/정확성 미흡
- API 기반의 정보 요청 시, 필수 정보 제공 누락
 ✓ E.g. VM Spec 정보, Disk 정보, Zone 정보 등
- API Call에 대한 return 메시지의 모호성
 - • •
- 자원의 동적 생성/삭제, 많은 시간 소요 및 Hold 현상
- 자원/서비스의 동적 활용 시(잦은 생성 / 삭제 / 업데이트 등), 불안정성
- • •
- VM 이미지, 신규 OS 미 지원
 - ✓ E.g. Ubuntu OS : ~ 20.04까지만 지원
- API기반의 Price, Cost, Billing 정보 미 제공
- Tagging 기능 미 제공
- 방화벽 적용 범위 상이 VPC / Subnet / VM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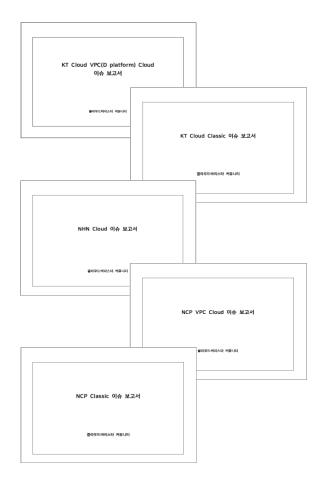
• • •





국내 CSP 협력을 위한, 클라우드바리스타의 대응 현황

• 국내 3사의 멀티 클라우드 측면의 이슈들을 정리



	상세 내용	비고
명칭	• [???-002] Security Group(방화벽) 생성 및 삭제 API 미지원으로, 멀티 클라우드 추상화 API 지원 불가	
이슈 파악 시점	• Cloud-Barista ??? Classic 연동 드라이버 개발 시작 시점	
이슈 분류	• 기능 미지원(O) / 기능 오류, 안정성() / 기타()	
이슈/문제점 현황	• ??? Classic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, 콘솔에서는 Security Group(S/G)을 생성/조회/삭제가 가능하지만, 개방형 API 기준으로 조회만 가능하고 생성 및 삭제 기능 미지원으로 콘솔을통한 사전 생성 후 활용 가능	관련 API 제공 계획 부재
글로벌 클라우드 현황	 글로벌 CSP는 API를 통해 S/G 생성/조회/삭제 기능 지원 전반적으로, 글로벌: 콘솔 < 개방형 API(멀티 클라우드향), 국내: 콘솔 > 개방형 API (중앙집중형 클라우드향) 	
Cloud-Barista 처리 방식	 ??? Classic의 경우, Security Group을 콘솔에서 생성 후, 해당 Security Group을 CB-Spider나 CB-Tumblebug를 이용해 등록(register)하여 사용하는 방식 지원 (생태계 측면의 불이익) 글로벌 공개SW에서 지원할 수 없는 클라우드로 인식 	

[이슈 보고서의 형식]



멀티 클라우드를 향한 사업자별 주요 시점 (Recommended...^^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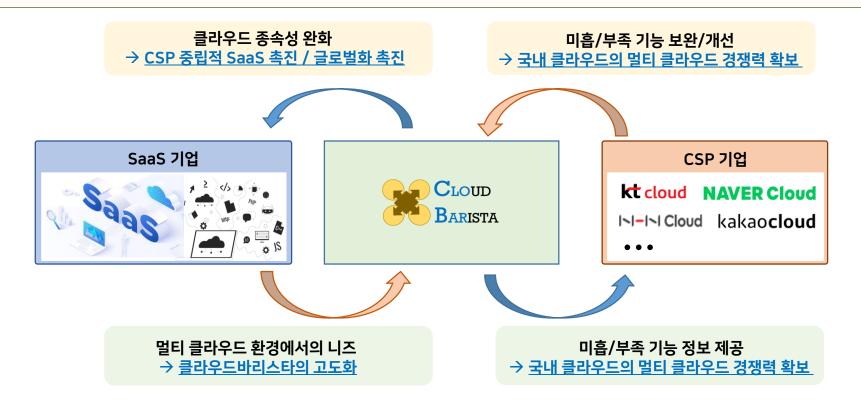




멀티 클라우드 진입 및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협력



・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개별 <u>클라우드사(CSP)</u>,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할 <u>SaaS 사업자</u>, 그리고, 멀티 클라우드 만들어가는 <u>클라우드바리스타</u>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

 $m{st}_{ ext{Barista}}^{ ext{Cloud}}$ 생각 : 사용 o 피드백 o 보완/개선 o 사용 증가 o 더 많은 피드백 o 보완/개선 o \cdot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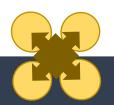
국내 현황에 따른 시사점

- (국내 클라우드 개방형 API 고도화) 멀티, 분산 클라우드의 핵심은 개방형 API 고도화
 - 3rd Party 서비스, 솔루션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
 - 하지만, 국내 주요 CSP의 클라우드는 개방형 API 제공 측면과 기능 안정성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
 - VPC, Subnet의 제어 API 등

- (국내, 글로벌과 형상/기능 유사성 제고) 시장에서 통용되는 사실표준에 가까운 형상/기능 제공
 - 클라우드 시장은 Amazon(AWS), MS(Azure), Google(GCP)을 중심으로 기술/서비스 생태계가 성장 중
 - 글로벌 *aaS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3사의 아키텍처/기능 형상과의 유사성 유지는 중요

- (글로벌 공개SW 생태계 진입 노력) 주요 공개SW 솔루션의 글로벌 생태계로 진입 필요
 - 클라우드 분야는 유난히 공개SW의 지배력이 큰 분야
 - 클라우드 산업계의 지배적인 공개SW 솔루션은 글로벌 CSP 3~4개 사를 중심으로 개발, 제공되고 있음
 - 국내 CSP 사업자는 보유 클라우드 서비스가 글로벌 솔루션 및 생태계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발 참여가 필요한 상황
 - 예, 공개SW로 글로벌 수요자들의 활용도가 높은, 쿠버네티스 관리 솔루션(Kube-sphere, Kub-Fed 등) 등





클라우드바리스타의 기술과 커뮤니티는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으나,

그 끝은 국내 공개SW와 클라우드를 지향 하고 있습니다.



🧱 CLOUD 생각 : 멀티 클라우드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니치 마켓입니다.

